서로의 어려움 함께 극복하는 사회로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㊶ '오싹한 연애'(2026)



'오싹한 연애' 는 귀신을 보는 재벌 상속녀 천여리와 권력과 카르텔에 굴하지 않는 검사 마강욱의 좌충우돌 오컬트 로맨스 드라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사진 캡처

어느덧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이것이 실제인가 AI인가를 의심해야 하는 시대다. 그런데도 한을 품고 죽은 이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소복에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나 "사또"를 부르던 고전 속 귀신들은 현대에 맞는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등장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이들도 여고생, 공인중개사, 형사, 변호사, 노무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한여름 밤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던 그 옛날의 '전설의 고향'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셈이니, 최첨단 기술문명 속에서도 전설이 계속되는 '전설적인 시대'라고 할까.

귀신들의 한은 대부분 현생에서 당연히 해결됐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생겨난다. 관례와 편의라는 이름에 가려진 불공정과 차별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 은폐와 억울을 낳는 것이다. 21세기에도 이처럼 이승을 떠도는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억울한 사연들이 넘쳐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드라마 '오싹한 연애'의 주인공은 재계 서열 5위 레이나 그룹 상속녀이자 국내 최고 럭셔리 호텔 대표 천여리(배우 박은빈)다. 겉보기엔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으니, 바로 12년 전 요트 사고를 겪은 이후 귀신을 보게 된 것. 귀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여리를 찾아와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다. 세월에서 얻은 노하우로 여리는 저녁에 집으로 찾아오면 한을 풀어주기로 귀신들과 합의를 보고, 낮에는 호텔 대표 일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는 귀신 보는 일이 여리에게만 한정되지 않는 데에 있다. 여리와 손이 맞닿는 사람은 누구나 귀신들에 시달려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기간이 한 달이라는 것 정도. 그래서 여리는 1년 365일 항상 긴 장갑을 끼고 다니며 주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산다.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도 "스톱! 거리 유지!" 행여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아도 섣불리 손을 내밀 수 없고, 사람들 만나는 일도 극도로 꺼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여리를 오해한 사람들은 "뭘 보든 무시하고 누구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결벽증이 있다"고 하거나 "유럽 어디 왕세자빈 코스프레한다"고 뒷말들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아간다. 호텔 대표다운 드넓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잘 때엔 귀신들을 피해 작은 텐트를 안식처로 삼는다. 더구나 사촌동생 천하리(배우 조혜주)와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없는 여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밖에 없다.

이런 여리를 움츠리게 만든 것은 6년 전의 파혼이다. 여리는 약혼 전에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함께 있으면 평생 두려움과 공포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약혼자는 괜찮다며 당당하게 여리의 맨손을 잡았다. 그런데 정작 약혼식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을 만난 약혼자는 "손 한번 잘못 잡았다가 진짜 귀신이 붙을 줄 몰랐다"며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이 일로 여리는 스스로를 고독한 섬에 가둔 채, 외로움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다.

한편 탁월한 피지컬과 비상한 두뇌에 정의로움과 따스한 인간성까지 갖춘 서울지검 에이스 검사 마강욱(배우 양세종)은 굳은 신념으로 권력과 카르텔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다. 사건을 쫓던 강욱은 깊은 밤, 야산에서 여리를 만난다. 그리고 버려진 자동차에서 시신을 발견한다. 강욱이 여리를 범인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지사.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어찌어찌 오해를 풀고 헤어지는데, 첫 만남이야 우연이었다 치더라도 그날 이후 강욱은 계속해서 시신이 유기된 장소에서 여리와 마주친다. 귀신들의 사연을 듣고 현장을 찾아간 여리 덕분에 사건을 해결한 강욱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갈수록 여리의 정체가 궁금해진다.

재벌 상속녀와 열혈 검사의 오컬트 로맨스
귀신 보는 공통분모로 연애하며 상처 치유
현생 집착 귀신 · 원망 품은 삶 다를 바 없어
원한 · 억울함 내려놓고 더는 고통받지 않길



드라마 '오싹한 연애' 포스터. 사진 출처=tvN

얼마 후, 검사실 직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강욱은 다시 여리를 만난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테이블을 모두 예약하고 혼자 술을 마시던 여리는,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다가 자신을 말리는 강욱의 셔츠를 찢으면서 그만 맨손으로 강욱을 만진다. 다음 날 여리가 사과의 의미로 값비싼 셔츠를 보내자, 셔츠를 돌려주려고 여리의 집을 찾아간 강욱. 그날부터 드디어 강욱도 귀신을 보기 시작한다. 덕분에 여리의 비밀을 알게 된 강욱은 예전의 약혼자와는 다르게, 여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 함께 귀신들의 한을 푸는 일에 나서게 된다.

드라마 '오싹한 연애'는 귀신을 보는 호텔 재벌 상속녀와 열혈 검사가 같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오컬트 좌충우돌 공조 수사 로맨스'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오싹한 연애'가 원작인데, 여자 주인공이 술에 취해 남자 주인공의 셔츠를 찢는 장면이나 남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아이 귀신의 사연 정도만 원작 내용에서 가져왔을 뿐, 주인공들의 직업은 물론 나머지 모든 이야기는 드라마가 새롭게 만들어냈다. 특히 영화 '오싹한 연애'의 귀신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역할이었다면, 드라마 '오싹한 연애'의 귀신은 자신의 억울한 한을 풀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과 같은 역할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귀신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서 이승을 떠나게 하는 여리는 내로라하는 호텔의 대표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오밤중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숨기고 다닌다. 사건의 희생자는 물론 그들 가족의 가슴속 멍울까지 풀어주는 역할이니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구제하는 영웅의 캐릭터지만, 남들이 알아선 안 되기에 한없이 외로운 여리. 그런 외로움은 사랑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큰소리치던 약혼자는 귀신을 보게 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머리로야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은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마강욱은 달랐다. 여리의 손이 닿아 귀신을 보게 됐을 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귀신의 사연에 귀를 기울였고, 여리의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위로한다. 귀신을 보기 때문에 여리는 세상과 담을 쌓았지만, 귀신을 보기 때문에 강욱은 여리의 담을 무너뜨렸다.

그런 점에서 '오싹한 연애'라는 제목은 이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자신의 손이 닿는 사람도 귀신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여리. 연애의 기본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인데 여리는 연애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비단 귀신을 봐서만이 아니라, 혼자여서 오싹한 삶이다. 하지만 귀신을 보는 오싹함은 그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해 줄 수 있으면 다른 차원이 된다. '귀신을 본다'는 공통분모를 계기로 여리와 강욱은 연애를 시작하고, 그들의 연애는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한편,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러 찾아오는 귀신들은 왜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생에 집착하는 걸까. '삶'에서 '죽음'으로 차원이 바뀌었으니 이제 이생에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할 텐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현생에 집착해서 귀신이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이, 실은 살아있는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귀신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모두 살아생전 겪었던 일이고, 살아생전 품었던 마음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억울함을 가득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귀신들의 한을 다루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그들이 하루빨리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극락으로 왕생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는 현재의 삶이 힘겨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억울한 사정이 생겨도, 외롭고 힘들어도,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여리가 강욱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았듯이, 버거운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할 불국토가 아닐지.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목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